성범죄 온상 추락한 美 불교공동체

샴발라 센터, 수장 이어 회원들까지 경찰 입건

박정현 객원기자

전 세계적 불교 공동체인 샴발라 센터(Shambhala center)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7월 샴발라 센터의 수장인 사경 미팜 린포체(Sakyong Mipham Rinpoche)를 비롯한 지도층 스님들이 신도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회원들 간 성폭행 혐의마저 불거졌다. 심지어 아동 성폭행 사건이다.

미국 콜로라도주(州) 경찰이 볼더시에 위치한 불교 공동체 샴발라 센터의 전(前) 회원,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 · 54)를 체포했다고 불교매체 더부디스트도어가 7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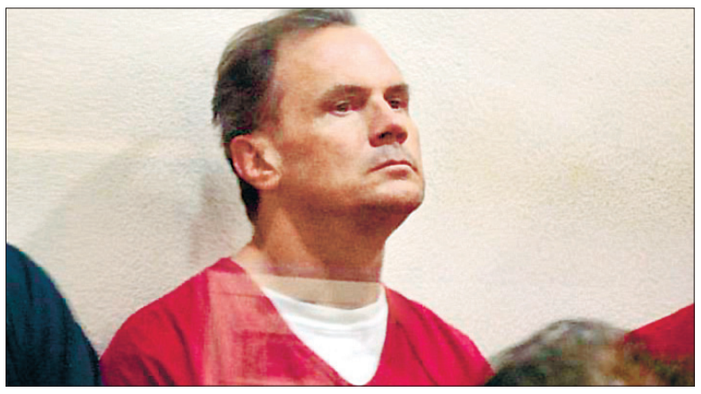
그는 해당 불교 공동체에서 소개 받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체포됐다. 피해자 A씨가 10대였을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그녀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볼더 경찰은 "피해자는 스미스로부터 13살 때인 1997년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스미스는 볼더 시 샴발라 센터의 회원으로서 그녀를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문제는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이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스미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샴발라 센터 회원이 나타났다. 피해자 B씨는 "11살 때 샴발라 센터 불교 수련회에서 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스미스는 버몬트주에 위치한 샴발라 센터 분원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했다. B씨는 9살 때 해당 분원 수련회에서 스미스를 처음 만났다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미스가 우리 가족에게 2~3년간 방을 임대해줬다. 나는 그곳에 사는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처음에는 무섭고 수치스러웠지만 나중에 부모님에게 알렸고, 그들이 스미스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사경 미팜 린포체부터
최근엔 센터 회원들까지 적발
회원 스미스는 '아동성폭행'
국제적 불교네트워크 망신살

하지만 사건은 곧 은폐됐다. "샴발라 센터 일부 신도들이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 B씨 부모는 "처음에 샴발라 센터에 알렸는데 관계자들이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 그가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불교 공동체에서 만난 아동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마이클 스미스.
사진출처=더부디스트도어

실제로 해당 사건은 샴발라 센터 내에서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샴발라 센터 볼더시 분원의 관리감독자 멜라니 클라인은 "최근 몇 년 간 아동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보고된 바 없다"며 "이번 기회로 그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스미스는 볼더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지난달 28일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한 상황이다. 그에게는 지난 2일 보석금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가 청구된 상황이다. 그는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샴발라 센터가 성범죄 혐의로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샴발라의 前 불교교사인 윌리엄 로이드 카렐리스(71)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카렐리스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샴발라 센터의 총 수장인 사경 미팜 린포체가 주취 상태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평소 마음에 드는 신도를 점찍어 두고, 강제로 유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국제 불교 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미팜 린포체의 그 사건을 단초로 지난해 말에는 전(全) 소속 승려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다. 샴발라 센터는 티베트 불교에 근원을 둔 국제 불교 네트워크다. 전 세계 50여 국가에 약 200개 명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日, 30년간 잠든 벽화 재조명

1987년 일본 방문한 네팔인 화가가 남겨

약 30년간 산속 절벽에 잠들어 있던 관세음보살이 깨어났다. 일본의 히로시마현 북부, 키타히로시마쵸(北広島町)의 최고봉 류즈야마(龍頭山, 928m)에 네팔인 화가가 남긴 관세음보살 벽화가 재발견된 것이다. 이 소식을 '야후 재팬 뉴스' 'TV 신히로시마' 등의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류즈야마의 명소인 코마가타키 폭포 옆 절벽에 그려진 관세음보살은 1987년, 전시회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네팔인 화가 라마난다 죠쉬 씨가 남긴 것이다. 라마난다 씨는 당시 네팔을 대표하는 화가로 현대 네팔회화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생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던 라마난다는 자신의 작품에 일본 회화의 디자인을 혼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30년간 이끼 밑에서 잠자고 있던 관세음보살도. 사진출처=TV신히로시마 방영화면

그가 어떤 이유로 류즈야마에 벽화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아는 이들도 많지 않다. 또 벽화를 남긴 이듬해 갑자기 사망해 그대로 벽화에 대한 이야기는 잊혔다.

지난해 초, 라마난다 씨의 딸인 라마난다 닐라 씨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에 남은 부친의 작품들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벽화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류즈야마 전문 가이드인 타케우치 마사하루 씨는 "닐라 씨가 부친의 작품을 찾는다는 이야길 듣고 혹시나 해서 기억을 더듬었다"고 말했다.

벽화는 발견당시 이끼에 덮여 있었으나 채색은 대부분 온전히 남아 있었다. 타케우치 씨는 "30여 년 전에 그린 그림이고, 워낙 습한 곳이라 더는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발견 당시의 생각을 전했다.

작품은 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두 손을 모은 관세음보살로, 연화좌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타케우치 씨는 "코마가타키 폭포는 예로부터 관음성지로 지역에 알려져 있다. 관세음보살을 이곳에 조성한 것도 그런 연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림을 기억하고 있던 또 다른 지역주민 타케무라 미야비노 씨는 "라마난다 화가가 '부처님을 그리겠다'고 말하곤 밑그림도 없이 3일 만에 그렸다. 일필지휘로 붓이 가는 모습에 감탄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라마난다의 딸 닐라 씨는 관세음보살도를 보고서 "아버지가 왜 이곳에 그림을 남겼는지 알 것 같다. 그러나 자비의 본존인 관세음보살을 그린 것은, 원폭이 투하됐던 히로시마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最古 금동 풍탁 출토 '눈길'

나라현 아스카데라서, "창건당시의 구조 실마리"

일본 최초의 불교사원인 나라현 아스카데라(飛鳥寺)의 구 부지에서, 일본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금동 풍탁(風鐸) 파편이 발굴됐다. 6월 2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제작법 등에서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나라문화재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스카데라의 구 부지에서 금동 풍탁 파편을 발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연구소 측은 "발굴된 유물은 풍탁의 머리 부분으로 금동제이며, 제작기법 등으로 보았을 때 창건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창건 당시의 것이라면 이 풍탁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풍탁이며, 당시 사찰 조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굴된 풍탁파편은 외부에 거는 고리와 내부 종을 치는 공이를 다는 고리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 8.4㎝ 길이의 작은 조각이다.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에 도금이 남아있어 본래는 금동 풍탁인 것으로 보이며, 남은 부분에서 추정하기로 약 20㎝ 가량의 소형 풍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 측은 "풍탁이 출토된 지층은 에도시대의 지층이었으나, 제조법과 형태에서 고대의 것으로 판명했다. 아스카데라가 여러 차례 소실과 복원을 거듭하면서 지층이 올라온 것으로 본다"고 출토환경을 상세히 전했다.

고대 사찰건축의 권위자인 오와키 키요시 긴키대학 교수는 "아스카데라는 백제사찰을 본 따 지어졌다. 백제의 사찰에도 풍탁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아스카데라에도 사용됐을 것으로 본다. (크기나 형태에서) 탑의 상륜부를 장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금동 풍탁 파편.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다른 전문가들도 "아스카데라의 구조는 여러 차례 발굴을 통해 파악됐으나 탑의 구조에 대해선 아직 큰 실마리가 없었다"며 이번 발굴이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고대 사찰건축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스카데라는 592년 백제에서 장인들을 초청해 건립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로, 당시 기록에는 금속공예 장인도 있었다고 전한다. 특히 596년에는 목탑을 완공해 1탑 3금당의 대가람으로 세워졌다. 이후 중세에 낙뢰로 탑과 금당이 소실, 현재는 2개의 법당과 요사채만을 가진 소규모 사찰로 재건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女승계자 매력적이어야" 발언 사과

달라이라마 "상처 될 수 있는 발언 후회"

"여성 승계자가 나온다면 더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티베트 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84)가 사과했다.

BBC방송 등 외신들의 7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상처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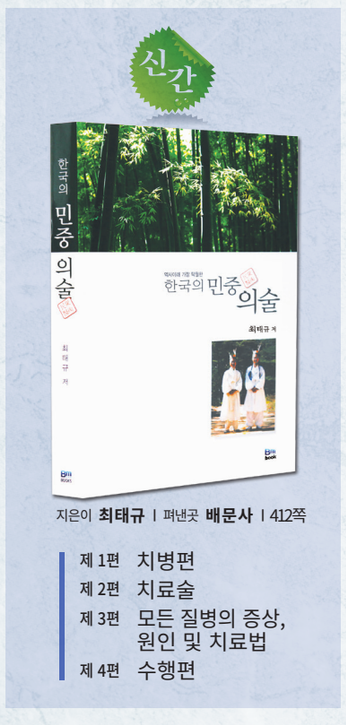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는 이어 "때때로 즐거움을 위한 즉흥적 발언이 문화의 맥락에 따라 유머를 잃는다"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고 참회했다. 이어 "평생 여성의 사물화를 반대하고 양성평등을 지지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달라이 라마는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2015년, 여성 달라이라마가 나온다면 그는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말했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웃었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여성 신체를 상품화하는 발언"이라며 크게 비판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달라이라마가 나온다면 더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홈페이지

박정현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